

“우리 쌀맛 제대로”... 식품업계, ‘프리미엄’ 시대 연다

쌀 주제 이색 신제품 붐물
하림 ‘더미식 즉석밥’ 선보
팔도 ‘비락식혜 제로’ 출시
CU 월간 막걸리 프로젝트

식품업계가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식재료인 쌀을 주제로 이색 제품을 내놓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어릴 때 먹던 구수한 쌀맛을 재현한 제품들로 소비자 입맛 사냥에 나선 것. 단순히 쌀을 원료로 하는 제품 출시에서 더 나아가 쌀의 품질과 풍미를 강조하는 ‘프리미(米)엄’ 제품을 표방해 트렌디한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선보인 더미식(The미식) 즉석밥은 ‘쌀’ 원물 자체에 집중해 100% 국내산 쌀과 물로만 지어 밥 본연의 품미(냄새, 색깔, 식감)를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물 붓기(가수)와 밀봉(실링) 공정을 최첨단 무균화 설비인 클린룸(클래스 100, NA SA 기준)에서 진행해 오직 쌀과 물로만 밥을 짓는 것이 가능하며, 구수한 밥 냄새 외에 이취가 전혀 없고 밥 고유의 빛깔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냉수 냉각이 아닌 온수로 천천히 뜸을 들이는 공정을 통해 용기를 밀폐하는 포장 필름과 밥 사이의 공기층을 만들어 밥알이 눌리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살아있어 갓 지은 밥의 식감을 완벽히 재현했다. 이로써 국내 즉석밥 시장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해 ‘즉석밥 2.0 시대’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더미식 즉석밥 /하림



비락식혜 제로 /팔도



감천막걸리 /CU

받았다. 최근에는 밥 소믈리에 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종합 만족도 항목 평균 4.3점으로 총 5개 제품 중 1위를 눈길을 끌었다. 집밥(14.3%) 대비 더미식밥의 긍정평가 비율이 57.1%로 4배가량 높게 나오는 등 밥 소믈리에로부터 ‘갓 지은 집밥보다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쌀이 세계 식품시장에서 글루텐프리 식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쌀을 활용한 건강한 디저트도 나왔다. 던킨은 한국 진출 30주년을 기념해 우리 쌀을 활용한 도넛인 ‘라이스 글레이즈드’와 ‘인절미 후로스티드’ 2종을 출시하며 프리미엄 시장에 뛰어 들었다.

신제품 도넛 2종은 명품 쌀로 유명한 ‘임금님표 이천쌀’로 만들어 더욱 화제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기후와 토질, 수질 등이 쌀 농사에 적합한 경기도 이

천 지역이 원산지인 매월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로 고가에 팔리고 있다.

약케팅(약과를 사기 위한 테케팅)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K-간식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약과도 밀이 아닌 쌀로 만들어 웰니스족을 파고들었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미니 쌀약과를 내놨으며, SPC 삼립은 최근 이색 스낵인 ‘약과자’를 출시했다. 약과자는 특히 볶은 현미와 쌀가루 등 고급 원료를 사용했으며 약과 겉면에도 쌀조정을 발라 약과 특유의 은은한 시나몬향과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편의점 CU가 전개하는 ‘월간 막걸리 프로젝트’도 프리미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월간막걸리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정통 막걸리를 CU 주류팀 MD가 직접 엄

선해 매월 1종씩 선보이는 막걸리 큐레이션이다.

팔도는 대표적인 쌀음료인 ‘비락식혜’를 헬시플레이어 트렌드에 걸맞게 제로 칼로리로 출시해 화제를 모았다. 팔도는 지난 4월 설탕, 당류, 칼로리를 0으로 없앤 ‘비락식혜 제로’를 선보였다. 여기에 들어가는 밥알은 국내산 멥쌀을 원료로 쌀에서 당질과 섬유질을 분리한 후 당질을 버리고 섬유질만 남긴 것으로 호르몬 불균형 억제에 도움을 준다. 주면서 칼로리 걱정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쌀을 이용한 음식은 글루텐에 민감하거나 소화장애인 셀리악병(Celiac Disease)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밀가루 대체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글루텐프리인 쌀이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플무원 ‘#플무원’ 리뉴얼 오픈

플무원은 통합 브랜드 쇼핑 플랫폼 ‘#(샵)플무원’이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쇼핑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객 참여 확대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리뉴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플무원의 첫 멤버십으로 지속가능성 가치를 담은 활동 포인트 제도 ‘#플무원 라운지’를 새롭게 마련했다. 마이페이지에 개설된 ‘#플무원 라운지’는 플무원이 지향하는 식물성 지향, 동물복지, 친환경 등을 여러 활동으로 풀어냈다. 아울러 율가푸드(이하 율가) 인증 상품 중심의 AI 추천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번 리뉴얼을 기념하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음 달 4일까지 ‘신규 코너 방문 스탬프 이벤트’에 참여하면 스탬프를 찾을 때마다 #플무원 적립금 500원을 100% 지급(최대 1500원)한다.

/신원선 기자

애경산업 ‘울삼푸 캡슐세제’ 출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중성 세제 브랜드 ‘울삼푸’에서 아끼는 옷을 간편하게 세탁해주는 ‘오리지널 캡슐세제(사진)’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울삼푸 ‘오리지널 캡슐세제’는 리넨, 실크, 니트, 블라우스 등 다양한 소재의 의류를 세탁해주는 캡슐형 중성세제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중성 pH를 적용해 섬유 손상 관리에 효과적이고 세탁시 보풀 발생을 줄여준다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울삼푸 ‘오리지널 캡슐세제’는 캡슐 1개당 약 4kg의 빨랫감을 세탁할 수 있도록 설계돼 세탁량에 따라 캡슐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덴마크 판매 재개

핵불닭볶음면 등 2종 리콜 해제
 현장 대응팀 파견 등 적극 대처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등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을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황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식약처는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번 리콜 해제를 이끌어냈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DVFA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 여 만에 이뤄내 성과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신원선 기자

SK바사, 연 2.3만MWh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SK E&S 20년 계약... 탄소중립 박차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에너지 기업 SK E&S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계약(PPA)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2026년부터 20년 동안 SK E

&S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동공공장 등 주요 사업장에 공급받는다. 해당 규모는 매년 2만3277MWh 수준으로,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인 307kWh 기준으로 약 7만5000여 가구에 매일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

간 약 1만1061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약 4400여 그루를 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SK텔레콤, SK바이오팜, SK가스 등 SK 주요 계열사들은 앞서 지난 2023년 SK E&S와 국내 최대인 연간 총 규모 537GWh의 PPA 계약 사전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지난 12일 이대목동병원에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영돈 고등기술연구원 본부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강수형 데이터룩 대표(왼쪽부터)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이화의료원 AI 기반 의료사업 다각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임산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위해 다양한 기술 분야와 협력한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12일 이대목동병원이 데이터룩,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의료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자 기관은 AI를 도입한 임산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임산부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임산부 건강 관리에 최적화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대목동병원은 임산부 건강뿐 아니라 여성 질환을 보다 잘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존슨앤드존슨 브랜드 모델에 박세리 선정

존슨앤드존슨이 신제품 출시와 함께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을 펼친다.

존슨앤드존슨은 골프 아이콘 박세리를 ‘아큐브 오아시스 맥스 원데이 멀티포컬’ 브랜드 모델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세리는 한국 최초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에서 우승해 골프선수로서 한국 골프의 위상을 높이고,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한 인물이다. 전 국가대표 감독에 이어 CEO, 방송인 등으로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은 박세리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보가 멀티포컬 소비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